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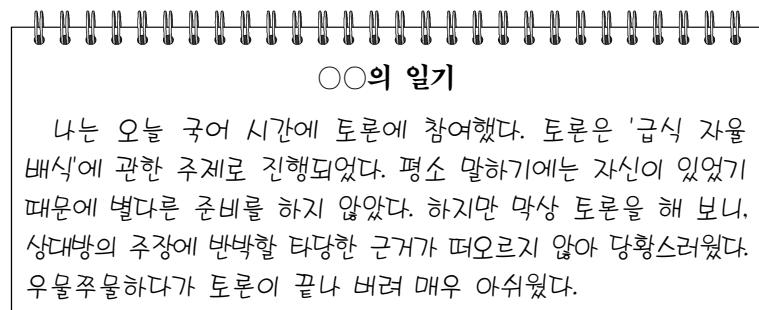
## 제 1 교시 국어

1. 다음 대화에서 ⑦에 담긴 ‘민재’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재: 지후야, 내일 축구 경기 잊지 않았지?  
 지후: 나는 첫 출전이라 팀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  
     이야.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민재: ⑦ 지난번에 연습할 때 엄청 잘했잖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지후: 고마워, 내일 열심히 하자!

- ① 감사     ② 격려     ③ 사과     ④ 양보

2. 다음은 학생의 일기이다. 일기를 쓴 ‘나’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한다.  
 ②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③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를 미리 마련한다.

3. 다음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버스’를 ‘가방’으로, ‘사람’을 ‘토끼’로, ‘책상’을 ‘비행기’로 바꾸어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 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②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③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④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

4.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된장찌게 가격이 너무 올랐어.  
 ② 이따 수업 맞히고 도서관에 가자.  
 ③ 오늘은 웬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  
 ④ 남은 짐들은 모두 집으로 부쳤어.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은?

‘잇몸소리’는 혀끝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 ① ㄱ     ② ㅁ     ③ ㅈ     ④ ㅌ

6.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 ■ 표준 발음법 ■

【제11항】 겹받침 ‘ㄹㄱ, ㄹㅁ, ㄹ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 한다.

- ① 굵고[굵:꼬]     ② 맑게[막께]  
 ③ 읊고[읍꼬]     ④ 젊지[점:찌]

7.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⑦과 같은 것은?

그곳의 경치는 ⑦ 아름답다.

- ① 밥이 정말 맛있다.  
 ② 새로 산 신발이 나에게 작다.  
 ③ 사진을 보니 옛 추억이 생각난다.  
 ④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 ① 토끼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다.  
 ②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린다.  
 ③ 나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린다.  
 ④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9. 다음 개요의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	웃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1. 웃음의 신체적 효과 가. 폐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나.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다. 2. 웃음의 정신적 효과 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나. 행복감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3. 웃음의 사회적 효과 가. ⑦ <sup>⑦</sup> 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중간	
끝	웃음의 중요성

- 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③ 심장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④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 10. ⑦~⑩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겪은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⑦ 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 감독님께 ⑧ 발각되어서 축구부에 들어갔다. ⑨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가 해체되었고, 다시 축구를 하려면 전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⑩ 왜냐하면 나는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 ① ⑦: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로 바꾼다.
- ② ⑧: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발탁’으로 바꾼다.
- ③ ⑨: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⑩: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결국’으로 바꾼다.

##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명명하기만 하다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펑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질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기 무슨 꼴이고, 이기?”

“아부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피조조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중략)

개천 둑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둑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끝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진수는 꾹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어리<sup>1)</sup>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sup>2)</sup>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래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sup>3)</sup>,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부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⑦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 하근찬, 「수난이대」 -

1) 등어리: ‘등’의 방언.

2) 목줄기: ‘목덜미’의 방언.

3) 주워섬기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이러저러한 말을 아무렇게나 늘어놓다.

## 11.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리 상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도는 처음에 진수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란다.
- ② 진수는 만도가 자신을 업는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 ③ 만도는 현재 진수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진수는 자신을 외면하는 만도에게 증오심을 느끼고 있다.

## 1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도는 진수의 아버지이다.
- ② 진수는 외나무다리를 보고 난감해한다.
- ③ 진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만도의 등에 업혔다.
- ④ 만도는 한쪽 팔이 없고,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다.

## 13.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도와 진수의 대립 양상을 드러낸다.
- ② 현실을 회피하려는 만도의 심정을 강조한다.
- ③ 등장인물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현재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냉소적인 태도를 암시한다.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한 소재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시키고 있다.

#### 15. 윗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다.
- ② 각 연을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 16.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에 대한 그리움
- ② 이웃에 대한 연민
- ③ 이상향에 대한 동경
- ④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과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혹 사람들이  
⑦ 자기를 알아볼까 겁을 먹고는 한 다리를 목에 걸어 귀신  
춤을 추고 귀신 웃음소리를 내었다. 문을 박차고 달아나다가  
그만 들판의 움 속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똥이 그득 차 있었다.  
겨우 버둥거리며 붙잡고 나와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니 이번엔  
범이 앞길을 막고 떡 베티고 서 있다. 범이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가리고 머리를 돌리면서 한숨을 쉬며,  
“⑧ 선비, 어이구. 지독한 냄새로다.”

하였다. 북과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가 세 번 절하고 끓어앉아 머리를 들며,

“범 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합니다. 군자들은 범의  
빠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범의 결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제들은 범의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범의 위엄을

취합니다. 범의 이름은 신령한 용과 함께 나란하여,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릅니다. 인간 세상의 천한  
사람이 감히 범 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하니 범이 호통을 치며,

“가까이 오지도 마라. ⑨ 내 일찍이 들으매 선비 유 자는 아침  
유 자로 통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천하의  
나쁜 이름이란 이름은 모두 끌어모아다가 함부로 우리 범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까 면전에서 낮간지러운  
아침을 하는구나. 그래, 누가 네 말을 곤이듣겠느냐?”

(중략)

북과 선생은 자리를 옮겨 엎드리고 엉거주춤 절을 두 번  
하고는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sup>1)</sup>하면  
하느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 ⑩ 이 천한 신하, 감히  
범 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하고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 보니, 오래도록 범의 분부가  
없었다. 두렵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 살펴보니, 날이 밝았고 범은 이미 가 버렸다.

아침에 김을 매리 가는 농부가 있어서,

“북과 선생께서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A] 하고 물으니 북과 선생은,

“내가 『시경』<sup>2)</sup>에 있는 말을 들었으니, ‘하늘이 높다  
이르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  
이르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네.’ 하였다네.”

라며 대꾸했다.

- 박지원, 「호질」 -

1) 목욕재계: 부정(不淨)을 타지 않도록 깨끗이 목욕하고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2) 『시경』: 오경(五經)의 하나. 중국 최고(最古)의 시집으로, 주나라  
초부터 춘추 시대까지의 시 311편을 수록함.

#### 1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과 선생은 귀신 춤을 추며 달아났다.
- ② 북과 선생의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 ③ 범은 북과 선생의 말을 곤이곧대로 받아들였다.
- ④ 범은 북과 선생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 18. [A]에 드러난 ‘북과 선생’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세를 부리고 있다.
- ② 농부를 칭찬하고 있다.
- ③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
- ④ 범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 19. ⑦~⑩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⑦
- ② ⑧
- ③ ⑨
- ④ ⑩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퍼센트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 ㉠ )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A]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도 피해를 주며, 선박의 안전도 위협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지질 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 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

- 박경화,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

2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자.
- ② 국내외의 해양 생물을 보호하자.
- ③ 플라스틱의 생산을 전면 금지하자.
- ④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자.

21. 다음은 윗글의 [A]를 정리한 내용이다. 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 플라스틱 쓰레기는 ⑨

- ① 쉽게 분해되어 토양을 오염시킨다.
- ②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 산업에 피해를 준다.
- ③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친다.
- ④ 해산물에 유입되어 식탁에 올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22.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코
- ② 또한
- ③ 그렇지만
- ④ 왜냐하면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지요.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퐁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퐁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귀로 듣는 ‘퐁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먼저 ( ㉠ )을 /를 살펴볼까요?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다음은 기법입니다. 물보라가 ㉡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의 ‘퐁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지요.

끝으로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 이명옥,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

23.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퐁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파도가 치는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 ② 유화 물감을 사용하여 색을 선명하게 표현했다.
- ③ 롤러를 사용해 물보라를 노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다.
- ④ 수영장의 수평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룬다.

24.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 ② 소리
- ③ 질감
- ④ 향기

25. 밑줄 친 부분이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 ② 물에 세제를 풀자 거품이 일어났다.
- ③ 민수가 외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 ④ 그는 감기에 걸렸지만 금방 털고 일어났다.